

제21회 한국원자력 연차대회 개최

세계 14개 나라와 기구에서 원자력 전문가 600여명 참가 성황

한국원자력산업회의(회장 한준호)와 한국원자력학회(회장 김시환)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21회 한국원자력연차대회가 4월 19일(수)부터 21일(금)까지 3일간 서울 웨라톤 그랜드 워커히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국내 최대의 원자력 국제 회의인 이번 연차대회에는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세계 주요 원전 운영 국가 12개국과 IAEA, OECD/NEA 등 국제 기구에서 원자력 전문가 600여 명이 참석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원자력(Sustainable Development of Nuclear Energy : Issue & Challenges)」이라는 기조 주제 아래 최근 지구 환경 보전의 최적화 에너지원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한 원자력계의 전망과 비전 등이 심도있게 모색되었다.

4월 20일 열린 개회 세션에서 한준호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1세기의 새로운 경제 질서와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도전과 난관은 우리에게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이니, 이러한 제반 어려운 여건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우리 원자력계도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과 함께 보다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한 곳으로 모아 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세계 각국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원자력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원자력의 부흥 움직임은 다양한 원전의 건설과 운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큰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연차대회가 원자력 전문가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토론함으로써 원자력의 밝은 미래를 설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열린 기조 강연에서는 이종재 한국수력원자력

(주) 사장(한국 원자력산업의 현황과 전망), Tomihiro Taniguchi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세계 원자력산업의 변화와 IAEA의 역할), Vuong Huu Tan 베트남원자력위원회(VAEC) 위원장(베트남 원자력산업의 현황과 전망), Richard A. Meserve 국제원자력기구 원자력안전그룹(IAEA-INSAG) 위원장 겸 미국 워싱턴 카네기연구소장(미국 원자력산업의 현황과 전망), Oliver Caron 프랑스원자력청(CEA) 국제협력 부국장(유럽 및 프랑스 원자력산업의 현황과 전망), Masao Takuma 일본원자력산업회의(JAIF) 상근부회장(일본 원자력산업의 현황과 전망) 등 국제 원자력 고위 인사들이 강연을 하였다.

4월 20일 오후에 열린 패널 세션에서는 방기열 에너지경제연구원장, Angelina S. Howard 미국에너지협회(NEI) 부회장, Paul Felten 프랑스 AREVA 부사장, A. Birkhofer 독일 ISaR연구소 전무이사가 기조 강연을 하고, 장순홍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양봉진 에너지전략포럼 회장, J. Ronaky 헝가리원자력총국장, D. F. Torgerson AWCL 부사장이 패널리스트로 참가해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을 주제로 열린 토론을 벌였다.

4월 21일에 열린 기술 세션은 「원자력 운영의 신뢰성», 「원자력과 환경»,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의 이용», 「원자력의 미래», 「원자력 경제성», 「원자력산업의 국민 이해», 「원자력 안전성」 등 7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총65편의 기술 논문이 발표되었다.

한편 「2006 서울 원자력산업 전시회」가 연차대회 기간과 병행하여 워커히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었는데, 이번 전시회에는 한국수력원자력(주), 두산중공업(주), 한국전력기술(주), 한전기공(주), 한전원자력연료(주), 한전 전력연구원, 한국원자력국제협력재단, AREVA, Westing 등 국내외에서 9개 원자력 관련 업체가 참여하여 연차대회 참석자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제13회 한국원자력기술상 시상식 개최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대상 수상

제13회 한국원자력기술상 시상식이 4월 20일 웨라톤 그랜드 워커히 호텔에서 열렸다.

제21회 한국원자력연차대회 개최식 전 행사로 열린 이번 한국원자력기술상 대상(국무총리상)에는 다양한 원자력 홍보 사업을 통해 원자력의 이해 증진을 도모한 공로로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수상했다. 금상(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상)은 삼성물산(주) 원전사업팀 (단체상, 김은희(金銀姬)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 조성은(趙誠恩) (주)무진기연 대표이사가 받았으며, 은상(한국원자력산업회의 회장상)은 황민영(黃民榮)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소장, 임우섭(林佑燮) 효성에바라(주) 상무, 권용복(權容復) 한전원자력연료(주) 연료서비스실 실장이 수상했다.

수상자 공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 : (재)한국원자력문화재단 (단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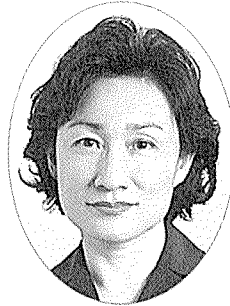
(재)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1992년 3월 설립된 이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꾸준히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원자력산업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증진은 물론 원자력의 미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차세대 교육 문화 사업에 앞장서는 등 사회공익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 금상 : 삼성물산(주) 원전사업팀 (단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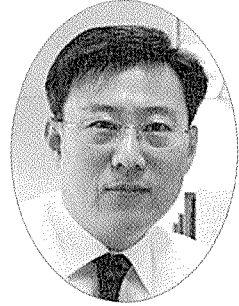
삼성물산(주) 원전사업팀은 1991년 원자력 핵심 인력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원전 건설 사업에 필수적인 ASME NA/NPT 인증을 취득하였고, 국내 원전 건설을 통하여 탁월한 사업 관리 능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원전 시공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 금상 : 김은희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

미국의 PNNL 및 Texas A&M 대학의 장치와 더불어 세계 제3대 마이크로전자빔 장치인 '개별 세포 조사용



박금옥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이영일  
삼성물산(주) 원전사업팀 상무



김은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조성은  
(주)무진기연 대표이사

마이크로전자빔 장치(EMCI-KIRAMS)'의 국내 최초 제작에 기여하였고, 저에너지 전자의 국소 반응경로를 추적하는 나노전자 트랙 구조 해석 프로그램(ETMICRO)을 국내 최초 개발하는 등 저선량 방사선 특성에 관한 방사성물질 핵심 기술인 microdosimetry 및 microbeam 세포 조사 기술을 국내 소개함으로써 국가 저선량 방사선 영향연구의 기술 선진화에 기여하였다.

• 금상 : 조성은 (주)무진기연 대표이사

연구 개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02년 7월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한 이래 특허 2건, 실용신안 18건을 등록하여 원자력 분야의 지적재산권 확보와 함께 신제품 개발 및 국산화 개발을 위해 최근 3년간 약 39억원을 투자하여 제품화 및 연구 개발을 수행하였다.

• 은상 : 황민영 한수원(주) 월성 제2발전소장

1979년 월성 원전 1호기 시운전 요원으로 선발된 후 현재까지 발전 분야에 근무하면서 발전소 직원의 계통 전문가 제도를 기획·추진함으로써 발전소 운영 체계의 개선 등 중수로 원전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최근 원자로 안전 계통의 신뢰도 분석 기법 및 징후대응형 비상운전절차서 개발, 쾌적한 원전 주변 환경 조성을 위한 탄소-14 배출량의 혁신적인 개선, 발전소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 및 설비개선 등에 기여하였다.

• 은상 : 임우섭 효성에바라(주) 상무

1997년 원전 안전등급 펌프 국산화 전담팀을 구성, 그동안 전량 수입에만 의존하던 원전의 핵심 기기로서 최고의 신뢰성이 요구되는 원자력 안전 등급(Q-Class) 펌프 8종과 해수 순환수 펌프(CWP)의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여 약 2000억원의 수입 대체 및 건설 공기 단축에 기여함으로써 해외 선진 제작사의 기술 이전을 기피하던 원자력 펌프의 핵심 기술 확보 및 기술 자립에 기여하였다.

• 은상 : 권용복 한전원자력연료(주) 연료서비스실장

1985년 핵연료 국산화 초기 단계 경력 기술자로 입사한 이래 원전 연료 주요 부품인 상·하단 고정체 등 부품 국산화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고, 최근에는 해외에 의존하던 연료의 노내 성능 검사 장비를 국내 최초로 개발함으로써 신소재 및 고성능 개량 연료 개발에 활용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해외에 의존하던 연료 서비스 기술 분야의 전환점 구축에 기여하였다.

세부 목차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한국원산 사무국에서 마련한 편집 구성(안)을 중심으로 수록 내용 보완과 집필자 변경 등 추가 조정을 하였다.

또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대한 내용 추가 집필과 함께 각 분야별 전년도 주요 현황과 실적을 중심으로 기술토록 재조정하였으며, 특히 도서 이용자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책자 및 본문 글자 크기를 조정하고, 현재의 두터운 책 제본으로 인한 소장상의 어려움을 고려, 권수를 2권으로 분철하여 발간하기로 하였다. 2006년판 『원자력연감』의 발간 일정은 각 집필자의 원고 수집 및 편집위원 간의 원고 내용 감수를 거친 후 금년 8월경 발간될 예정이다.

원산 사무국 단합 대회

한국원산 사무국은 3월 24일 전 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관악산 등반을 통하여 단합 대회를 가졌다. 이번 산행은 사당동 관음사를 출발하여 연주대와 연주암을 거쳐 과천으로 하산하는 긴 코스를 택해 진행되었으며, 21회 한국원자력연차대회를 앞두고 직원들 간의 화합을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2006년판 『원자력연감』 편집위원회의 개최

한국원자력산업회회는 3월 28일(화) 원산 사무국 회의실에서 2006년판 『원자력연감』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 의를 개최했다.

원자력 분야 각 기관에서 선임된 8명의 편집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분야별 국내외 주요 실적 및 전망을 종합적으로 수록하기 위한 편 구성 및